

무주군, 119 고객지원단 운영

농업인들 위해 3월4일부터 수확 완료 시까지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무주군이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3.4.~농작물 수확 완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19 고객지원단은 농업인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소득과 직원 34명을 14개조로 편성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농업현장으로 투입한다.

단원들은 ▲작목별 핵심기술과 각종 시범·지도사업에 대한 지도, ▲돌발병해충 예방 및 방제지도, 그리고 ▲AS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예

찰활동과 차단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기술기획 담당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지도가 무주군 농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무주농업을 키우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중에는 각자 업무에서 주말에는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론과 기술이 농업인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은 민선 6기가 출범한 후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마을회관을 비롯한 농로

와 가로등 개보수, 농작물 수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등 농업인들로부터 138건의 건의를 받아 해결했으며 농작물안전보험 가입, 시기별 농작물 관리 등 62건의 홍보 사항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현장에 나와 고생을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라며 "농사짓다 보면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와서 정보를 주고 기술지도도 해주니 정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홀로 어르신들 위생 챙겨드린다

무주군, 150가구 대상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추진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주군이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독거노인 홈 클리닝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대청소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질병 발생요인을 없애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독거노인 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7,541명 중 1,780명으로 군비 2,200여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청소와 소독 각 2회 씩 실시할 예정이다.

총 150가구에 대해 홈 클리닝이 진행되며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1순위, 장애인

애인가구 등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2순위이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3월 3일까지 읍면별로 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청소와 소독은 4~5월 두 달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복지 담당 박기훈은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은 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위생상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해 홈 클리닝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완주군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완주군은 이번 가입시 강도상해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자연재해사고 등 3개를 추가, 종전의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이용사고 등까지 합쳐 7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범위는 보장내용 중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80%)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해왔는데,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이 보험금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정 회복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며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올해 살림살이 규모 2952억원 공개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완료... 재정자립도 1% ↓ · 재정자주도 1.24% ↑

장수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월(당해연도 예산)과 8월(전년도 결산)에 대해 연중 2회 공시하고 있다.

장수군의 201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 2,952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0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2,055억원, 내부거래는 235억원을 차지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73%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1% 감소된 결과를 보였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11%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약 1.24%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비해 각각 1.80%, 1.59% 높은 수치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으나 행정운영경비 및 채무 등이 낮아 세원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수입 뿐 아니라 의존재원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서울 '전북트래블마트' 참가... 마이산·홍삼 홍보

진안군은 신비의 명산 마이산과 지역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월 27~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요여행사, 언론홍보매체, 관광관련 기관 관계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북트래블마트'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14개 시군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27일(1일차)에는 서울 명동 주유기사에서 '토탈관광 전북

관광 캠페인'과 행사관계자 간담회를 가졌고, 28일(2일차)에는 시·군별 상담데이블을 마련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고 14개 시군이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군은 마이산과 홍삼스파, 돼지

문화체험관 등 청정자연과 체험시설, 지역특산물인 홍삼에 대한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기념품도 배부하여 참석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북트래블마트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기회"라며 "진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진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생각키움놀이터 이서 장난감도서관 개관

혁신도시 내에 아이들의 다양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00점의 장난감을 보유한 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 정성모 군의회 의장, 지역아동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서혁신도시 LH10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이서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서 혁신도시 LH10단지 멀티 프로그램실을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선보인 이서 장난감 도서관은 132.3㎡ 규모에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연령별 맞춤 장난감 총 294점과 함께, 종사자 2명을 두고 장난감대여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완주군민으로 회원가입을 통해(1년 2만 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다자

녀가정 등은 증빙자료 제출시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이서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15년 봉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아이들의 행복공간인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완주의 '아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 찾고 성장발달에 맞는 장난감을 매번 구입하기 힘든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2017년 군 핵심정책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9월 22일~24일 개최 확정

올 11회째를 맞이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최일정을 오는 9월 22일~24일로 축제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축제의 추진 결과에 따른 올해 반영계획 및 주요논의 사항 등이 보고·승인 건으로 처리됐으며,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추진위원들의 의견소통이 이뤄진 값진 자리였다는 호평이다.

전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축제'는 2016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대상에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또, 지역 어메니티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사과,오미자,토마토 등)을 테마로 한 체험형 축제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주어 작년 10회 축제 개최 시 34만 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6억 원, 경제효과 177억 원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일사천리반 운영

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전화는 건축물, 상하수도, 쓰레기, 도로, 불법광고물, 가로등, 저소득층 가구 생활불편 신고 등에 관해서 전화를 하면 해당 부서로 바로 연결,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하게 돼, 민원 만족도 향상, 행정신뢰도 및 체감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성모 대외협력팀장은 "주민들이 생활민원 전화 351-1472(일사천리)번호를 쉽게 기억, 생활민원발생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